

세계평화기원 메시지

오늘 한중일 3국 불교의 불자들이 중국 강소성 영산 범궁에 함께 모여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법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일본 불교계가 우의를 돈독하게 하고 함께 동북아시아 평화를 기원하며 시작한 ‘한중일불교대회’가 13차 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3국 불교계가 잘 알고 있듯이 올해는 한중일 동북아 3국 불교계의 우호

증진과 교류 확대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고 조박초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해이기도 합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중국 불교중흥을 위해 노력하시고 한중일 불교우호증진에 기여하신 공로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중일이 위치한 동북아 지역은 북핵문제와, 근자에 있었던 천안함 사건 등 군사적,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한중일 3국 불자들은 부처님의 자비의 가르침과 생명존중의 사상에서 그 해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3국의 불자들은 그간 불교를 통하여, 교류하고, 이해하며, 상호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고 조박초 선생이 전 생애에 걸쳐 간직했던 불법에 대한 깊은 믿음과 세계평화에 대한 원력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며, ‘한중일 동북아 3국 불교’가 지역 평화와 인류의 화합을 위해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시점이라 봅니다.

**끝으로, 근자에 많은 강우로 희생된
많은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며,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길
기원드립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54년 10월 19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 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